



'다이소 슬로건' 인종상 올리고 영화예매권 받자

균일가 생활용품 다이소아성산업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다이소 슬로건 찾기 이벤트'를 28일까지 진행한다. '필요한 건 다있소' 등 다이소 매장에 숨어 있는 슬로건 스티커를 찾아 인종상을 찍은 후 SNS에 업로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멤버십 포인트, 영화예매권, 음료권 등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9월2일에 발표한다.

누진제 폭탄...뿔난 소비자들 집단소송 조짐

전기로 누진제 논란 확산

국회, 6단계 요금제 감소추진 소비자들 매일 수백명씩 소송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전기요금 때문에 주름살도 함께 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하고,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누진제 개편은 흑서기마다 나오는 단

골 매뉴다. 에어컨 사용으로 요금폭탄을 맞는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누진제란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용 단가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1단계에선 kWh 당 요금이 60.7원이다. 하지만 100kWh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kWh 이상)에선 kW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6단계 요금이 1단계보다 무려 11.7배나 높은 것이다.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에 비해서도 각각 8.7배, 6.7배 높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낡은 누진제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달 초 누진단계

를 현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제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14%가 안 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이다"며 "그런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민 원내대변인도 8일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개편해 21세기형 '가량주구'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 밖에 새

누리당 조경태 의원의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전기 누진제 완화법안을 재추진할 것임을 최근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활발하다. 법무법인 인강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엔 하루에 수백명이 물리는 등 신청 인원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누진가는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티몬 '재규어' 온라인 판매 시끌

재규어코리아측 "협이 없었다" 티켓몬스터 "정식딜러사 계약"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가 국내 전자상거래 최초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수입 신차 판매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차량의 한국법인인 이 같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티켓몬스터는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재규어의 'XE' 포트폴리오 트립과 'R-Sport' 트림을 20대 한정으로 정상가에서 700만원이 할인된 4810만원과 4700만원에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은

오프라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자랑했다. 해외에서는 신차의 온라인 판매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온라인 커머스 채널에서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사이트 내에서 직접 결제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규어코리아측에 확인한 결과 티켓몬스터와 차량 판매를 논의한 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규어코리아 홍보 담당자는 "재규어코리아에는

9개의 공식 딜러사가 있는데 자체 조사 결과 어느 한 곳도 티켓몬스터와 계약한 바 없다. 티켓몬스터가 주장하는 공식 딜러사가 대체 어디인지 모르겠다. 만약 공식 딜러사와 계약한 것이라면 그곳이 어디인지 왜 밝히지 않는지 의문이다"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반면 티켓몬스터는 정식 딜러사와 함께 판매를 추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티켓몬스터측 관계자는 "딜러사에서 조심스러워해 공



식 딜러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병행 수입 등의 제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켓몬스터측의 주장대로 공식 딜러사와 계약한 것이라고 해도, 공식 수입 사인 재규어코리아측과 전혀 협의 없이 차량을 할인 판매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원성열 기자, 김명근 기자 sereno@donga.com

리우올림픽 중계, 안 끊기는 까닭은?

KT, 해저케이블 국제중계망 구축 안정성·속도 위성중계 한계 극복

"위성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드 스포츠팬들이라면 1980~1990년대 TV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화면이 정지하거나 뚝뚝 끊겨 보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빅이벤트에선 이러한 문제가 크게 줄었다. 그때부터 통신위성이 아닌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도 마찬가지다. 해저케이블을 이용하기 전 대부분의 해외 스포츠 중계는 통신 위성을 이용

했다. 1962년 7월 위성 '텔스타 1호'에 의한 미국 유럽 간 TV 중계가 그 시작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1982년 스페인 월드컵부터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통신 위성 기반 국제방송중계망을 활용해 해외 스포츠 중계를 했다. 하지만 2006년 독일월드컵 때부터 고화질의 다채널 콘텐츠 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장기간 안정적인 중계가 필요한 주요 국제대회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방송중계망은 방송사 별 채널 수를 최소 6개 이상 제공해 더욱 다양한 경기를 동시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위성통신은 태양간섭 등 대기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해저케이블은 여기에서 자유로워 보다 안정적인 중계가 가능하다. 이번 리우 올림픽도 해저케이블을 기



리우 올림픽은 위성통신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해저케이블을 기반으로 중계되고 있다. KT는 최근 한국과 브라질 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 KT

반으로 중계되고 있다. KT는 최근 한국과 브라질 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했다. 주 전송로는 부산 송정에서 시작해 미국 LA 데이터센터를 거쳐 브라질로 연결된다. 해저케이블 기반 한국-브라질 국제방송중계엔 약 0.2초가 걸린다. 약 0.5초가 소요되는 통신위성 기반보다 2.5배 이상 빠르다. KT는 또

원활한 중계를 위해 한국과 브라질 간 국제방송중계망 국제해저케이블 구간을 4개 루트로 설계했으며,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한 2개의 전송로를 추가로 확보해 안정성을 더했다. KT는 이번 국제방송중계망 운용을 위해 대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김명근 기자

비즈갤러리



한국타이어, 타이어나눔 사업 공모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사회복합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2016 한국타이어 동그라미 타이어나눔 사업' 공모를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타이어 동그라미 타이어나눔 사업'(사진)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위해 노후한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이동성(Mobility)을 반영한 한국타이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타이어는 사회복합공동모금회의 기관 운영 평가 내용과 대상 차량의 운행 현황 및 목적, 타이어 노후 정도 등을 평가해 총 550여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및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홈페이지

지(www.hankooktirefoundation.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롯데제과, 젤리추잉 '트위즐러' 론칭

롯데제과는 허쉬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신제품 젤리추잉 '트위즐러(Twizzlers·사진)'를 국내시장에 론칭했다. 트위즐러는 형태가 파베기 또는 스크류와 비슷하다. 쫄쫄한 식감과 상큼한 과일맛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다. 미국에서는 연간 5억달러 이상 판매될 만큼 인기가 좋아 미국의 국민과자도 불린다. 롯데제과는 이 제품이 본격 판매에 들어가면 월 평균 20억원의 매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젤리추잉(젤리+소프트캔디) 시장은 약

2400억원으로, 전체 캔디 시장 규모인 41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에버랜드, 13일부터 '태극 페스티벌'

에버랜드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태극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한다. 15일에는 오후 4시부터 카니발 광장에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광복절 특별 태권도 시범공연을 진행한다. 어린이 손님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퍼즐 만들기'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문 강사와 함께 어린이들은 색연필, 크레파스 등으로 퍼즐 위에 태극기를 직접 그려보고, 끈끈감리, 태극문양 등 태극기에 담긴 숨은 의미도 배울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BMW, 업계 최초 광학 측정 셀 적용

BMW 그룹이 자동차 제조업체 최초로 100% 자동화된 광학 측정 셀(cell)이라는 독특한 시스템 콘셉트(사진)를 독일 BMW 뮌헨 공장에 도입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팔이 센서를 이용해 전체 차량에 대한 3D 이미지를 만들고, 10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의 정밀한 캡처 데이터를 통해 3D 데이터 모델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눈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편차를 초기에 식별해 낼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BMW의 새로운 5시리즈 모델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차량의 기하학적 분석, 측정기술 및 규범 부문 책임자인 에두아드 오프스트는 "모빌 생산과정 초기부터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품질개

기아차, 아프리카에 '그린 라이트' 비추다

말라위에 임직원 봉사단 파견

기아자동차는 8월 기아차 중장기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열흘간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리마, 림통웨에서 청소년 교육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해 삶의 '빨간 불'을 '녹색 불(Green Light)'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작한 기아차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봉사단의 주요 활동은 청소년

교육 지원(환경개선·교육봉사·가정방문), 봉고트럭을 활용한 의료 및 교육 지원(이동 클리닉·도서관·영상관),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우기철 폭우 피해가정 지원) 등으로 진행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매년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해 글로벌 기아인의 진정성이 담긴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현재 아프리카 탄자니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케냐, 우간다 등 6개국 9개 지역에서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남미 지역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경제현장.jpg 우리 결혼할래?



결혼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결혼정보회사 기어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 전면에 8일 오전 '결혼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대형 태극기를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기어이 김영주 대표는 "우리나라가 초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함과 동시에 부부가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기어이결혼정보